

2012년 6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2. 6.29(목)

주요 발언 내용

▲ 화면 자막, 로고 등 개선해야

- 개선된 자막은 크기가 커진 건 좋으나 디자인이 촌스러워 보임(이상목 위원)
- 왼쪽 하단에 있는 자막에 날짜, 시간, 뉴스Y 로고가 돌아가고 있는데 균형과 성격이 안 맞고 복잡해 보임(한박무 위원)
- 뉴스Y 방송 오른쪽 상단에 로고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혼란스러움. 정책적인 이유가 있는지(이상목 위원)
- 왼쪽 하단의 시계가 눈에 들어오지 않음. 오른쪽 상단으로 옮기면 눈에 더 잘 들어올 것(김정연 위원)
- 급 자막을 제외하고 같은 시간대에 자막이 붉은색으로도 나가기도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음. 바뀌는 의미를 시청자들이 알아야(한박무 위원)
- 자막에 특파원 이름, 장소, '화상연결' 표기 등 나오는 게 너무 복잡함. '화상연결'은 기술적인 측면이지 시청자들에게 꼭 보여야 하는지(한박무 위원)
- 하단에 흐르는 자막과 본 뉴스의 연결이 없어 아쉬움(박영상 위원장)

▲ 런던올림픽 보도 신경써야

- 올림픽 보도가 금메달과 인기종목 보도 중심인 것이 문제. 은메달, 동메달은 메달로 취급하지 않는 언론의 여론몰이는 지양해야(김경모 위원)
- 이번 올림픽은 시차 때문에 좋은 게임은 새벽 3시나 4시에 방영. 그렇기 때문에 출근 전 패키지를 준비해야(박영상 위원장)

▲ 대선 보도 신중하게 기획해야

- 대선 보도시 후보들의 공약 실현성이 있는지 분석 평가해야(이상목 위원)
- 뉴스Y 대선보도 기획, 계획에 대해 시청자위에 소개했으면(김경모 위원)
- 뉴스Y 선거보도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야. 자문단 조직화, 청서 및 백서 작업을 통해 노하우, 문제점 등을 보도 아카이브로 정리(김경모 위원)
- 대선 보도에는 시청각 장애자들도 고려해 줬으면(이석구 위원)

▲ 뉴스Y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해야

-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파헤치는 차별화된 고발 프로그램 있어야(이상목, 김정연 위원)
- 마이너리티 리포트(가칭)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

개발해야(이석구 위원)

▲ 보도 및 대담 진행 방식 개선해야

- 정규득 특파원의 강한 경상도 사투리는 거슬림. 연습시켜야(김정연 위원)
- 뉴스Y에서 명지대 신율 교수와의 대담은 전날 YTN에 출연해 신율 교수가 했던 내용이 되풀이 된 것으로 문제 있음(김정연 위원)
- 한 교수를 불러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있음. 뉴스Y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의 보도가 아닌 남의 얘기만 듣는 것 같다는 생각(김정연 위원)
- (파업 종료 영향으로) 국제뉴스 꼭지도 많고 공중파 단신에 비해 뉴스 길이도 길어져 점차 제자리 찾아가는 것 같아 반가웠음(김경모 위원)
- 기사 한 꼭지의 길이가 외국은 3분 이상도 있음. 뉴스Y도 심층성을 강화하고 기사 길이의 완급 조절 필요. 분석 해설 기사 강화해야(김경모 위원)
- CF가 나가기 전, 앵커들이 주요 뉴스를 언급할시 FD가 종이를 건네주는 것은 긴급 뉴스일 경우에만 해당. 자제해야(한박무 위원)
- 관훈클럽은 취재하고 방송기자클럽은 취재 안한 이유 궁금(한박무 위원)
- 재난보도에 표준운영절차(SOP)가 있어야(한박무 위원)
- 정치 관련해서도 종편 등 타 방송사에서 출연한 인물이 나와 이미 했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자제해야(박영상 위원장)
- 9시 뉴스 남자 앵커 목소리가 여자 앵커에 비해 작음(최종준 위원)
- 명확하고 지루하지 않은 정보전달을 위해 앵커가 원고를 읽을 때 억양이나 톤, 빠르기 등을 조절 필요(최종준 위원)
- 여수엑스포 개막 한 달 성과와 개선책을 다룬 뉴스(6월 11일)에서 엑스포 홍보실장과 6분간 전화인터뷰는 길었음(차경애 위원)

▲ 심층성 강화하고 관점있는 보도해야

- 뉴스는 많지만 심층적인 보도가 부족해 공허한 느낌이 있음(김정연 위원)
- 차기 전투기 구입 관련해서도 정보에 취약한 국민들 위해 심층 보도해야 (이석구 위원)
- 택시, 화물연대 파업보도에서 사회적, 경제적 파급 관련 보도보다 왜 파업을 해야 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(이석구 위원)
-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 누출과 관련해 후속보도 약해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등의 발란스 맞춰야(이석구 위원)
- 엘지, 삼성의 아몰레드 기술 유출 보도는 단순한 발표로 이는 뉴스라고 볼 수 없음.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분석 보도해야(박영상 위원장)
- 뉴스 보도에 관점이 필요. 예를 들어 국회 회관 신축에 관한 보도의 경우 단순 보도에 그치지 말고 관점을 가진 보도를 해야(박영상 위원장)

▲ 기타

- 홈페이지 주요 영상에서 보도 일자 정보가 없음. 시정 바람(한박무 위원)
- 자막에 신경써야. 선고 공판인데 선거 공판으로 잘못 나가(김정연 위원)
- '보여줍니다', '진행 중에 있습니다'가 아닌 '보입니다', '진행 중입니다' 등으로 바꿔야 함. 앵커들 표현 신경써야(김정연 위원)
- 글로벌Y에서 방영한 자료화면에는 자료화면이라고 명시해야(이석구 위원)
- 글로벌 뉴스 보도시 한국적 시각에서의 분석을 강화했으면(이석구 위원)
- 'English Y'에서 AP 등 외국 언론처럼 우리나라를 'South Korea'로 지칭하는데 공식 명칭인 'Republic of Korea'로 반드시 고쳐야(박영상 위원장)
- 뉴스내용이 다른데 같은 자료화면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음(차경애 위원)
- 일부 뉴스에서는 필요 없는 영상들이 포함되어 집중력이나 관심 저하됨(최종준 위원). (끝).